

천년 전주한지에 새겨진

500년 조선왕조 역사 시민들과 만나다

한국전통문화전당서 내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전시회' 진행

천년 전주한지에 기록된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전주한지의 전통보존과 세계화 필요성에 대한 전주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 간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전주 전통한지의 대량 수요를 창출하고 친린했던 기록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재 복원용지로 키워나가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조선왕조실록 500년 역사, 1202책의 복본 결과물이 전시된다.

시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주한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을 영인 인쇄가 아닌 원본 그대로 재현한 복본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보존돼 역사적 가치가 큰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을 천년 전주한지에 기록해 보존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시는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8월까지 진행된 4년여 동안의 1차 사업을 통해 태조실록에서 명종실록에 이르는 전주사고본 총 13대 국왕의 실록 614책을 실록 제작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 5만 3130점에 달하는 복본화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오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 간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전시회'를 진행한다.

는 2차 사업으로 우수한 상태로 현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태백산사고본을 활용해 선조에서 철종까지의 나머지 조선왕조실록을 588책을 추가 복본,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천년한지에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전주에서 후손들에게 다시 기록된 것이다.

시는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주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재 복원용지로서의 전주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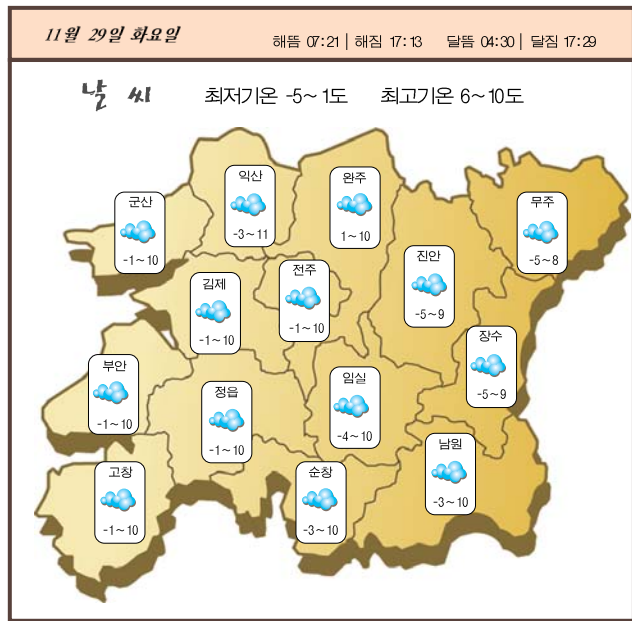
이에 앞서 전주한지로 복본된 조선왕조실록은 올해 2016 서울 국제도서전과 2016 세계기록총회(ICA), 2016 광주 북소리 축제 등에 초청돼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전통한지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복본된 조선왕조실록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지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통해 전통한지의 복원이 우리나라 전통한지산업의

고급화를 선도했다면, 복본 제작의 기술은 인쇄 산업을 집중함으로써 대중화의 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주의 한지문화가 고대문명에 등장하는 한지가 아닌 실존하는 한지로 세계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 83억원이 투입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전국 전통한지 업체 22곳이 참여했으며, 전통한지 수매량은 1만여 장에 이르는 전통한지 총 수매비용은 8억여원이 들어갔다. /김영재기자



전북 평준화 일반고교, 원서 접수

전북지역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7개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30일 원서 접수와 선발고사를 거쳐 내신성적 70점, 선발고사 180점 등 총점 280점 만점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전주 6,913명, 군산 1,674명, 익산 1,800명 등 총 1만 387명이다.

내달 16일엔 선발고사가 진행된다.

다. 고입선발고사 문제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연합 공동으로 출제하며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채육을 제외한 9과목을 출제한다.

영어 과목은 듣기평가 10문항도 출제한다.

선발고사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연합 공동으로 출제한다.

합격자는 내년 1월5일 발표된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재능기부의 집 18곳 '오순도순 나눔터' 현판 전달 계획

전주시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남몰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지역봉사 등을 발굴해 시상한다.

전주시는 올해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 재능기부에 앞장서온 '오순도순 나눔터' 18곳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각 업체 대표를 시장실로 초청해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오순도순 나눔터 선정업체들은 지역사회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년 이상 나눔 실천을 실행하고 있는 업체들로, 현판 전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회째다.

이들 선정 업체들은 해마다 △복거 노인 점심 대접 △소외계층의 명절선

물 △장애인 반찬 배달 △저소득 가정 장학금 지원 △지역복지단체 푸드뱅크 지원 △이웃 무료봉사 △자율봉사단체 재료 지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각 동 주민센터와 자원봉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순도순 나눔터'를 선정·시상하고 있다"면서 "내년도에도 지역사회에 작은 나눔 실천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으로 진정한 나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오순도순 나눔터' 칭찬탈레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한 주민·상인 워크숍 개최

지역문제 토론·활성화방안 도출 퍼실리테이션 회의 방식 진행

전주시가 주민 주도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연다.

시는 다음달 1일 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상인협의체 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총 5차례에 걸쳐 시행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시민들이 참여해 리서헌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를 강사로 초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토론과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퍼실리테이션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참여자들은 오는 12월 6일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마당에 참가해 타지역 사례를 수집하게 된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되는 활성화방안을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해 주민협력 시범사업으로 발전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는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노송동과 중앙동, 풍남동 3개동 일부(1,434㎡) 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진단 및 재생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도심 지역의 문화·관광, 상업, 행정·업무, 주거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상주·유동인

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추진된 각종 도시재생사업은 행정 주도로 '성장위주, 개발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시는 민선 6기 들어 '사람우선,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전주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요금 결제
-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이해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